

與 “사건 날조” vs 野 “중대 사안”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 ‘무더기 기소’ 공방

검찰이 지난 29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무더기 기소’한 것과 관련 여야는 30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무한 폭주”, “날조된 조직사건 기소를 보는 것 같다”며 고강도 비판에 나선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범죄사령부’라 지칭하고 “국정 농단 실상이 드러났다”며 맹공에 나섰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검찰이 왜 그

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그렇게 검찰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그 취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런 비판을 받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연루된 토착비리 의혹을 덮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벌인 일”이라며 “검찰이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수 개월 간 벌인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혜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13명 기소는 1980년대의 날조된 ‘조직사건 기소’를 보는 듯하다”며 “정치검찰의 무한 폭주가 일상처럼 돼버린 게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 국정 농단 게이트의 실상이 거의 다 드러났다”며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범죄 사령부로 칭해도 과하지 않게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모든 범죄 행위의 지휘자이자, 대통령까지 속인 참모들의 집단 범죄였는

가에 대해 국민께 답해야 한다”며 “본인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서 석고대죄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울산 선거가 청와대의 기획과 조직적 개입에 따른 것임은 너무도 분명하다”며 “선거 공작은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백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 공수처를 만들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의 손발 묶여도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이라고 비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여야, 2월국회 개회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급부상한 검역법 개정안과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비롯,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윤주덕 원내수석부대표와 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는 각 당의 원내지도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무더기 기소’ 등과 관련 여야 간의 갈등이 다시 촉발되고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선거구 획정과 경찰 개혁 관련 법안 등을 놓고 여야의 충돌 가능성도 높아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총선 라운지

이용빈·민형배, 광주 군공항 이전 총선 공약 촉구

광산갑·을 예비후보



이용빈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광산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민형배 광산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30일 민주당 중앙당에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광주·전남지역의 총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용빈 예비후보는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주체인 국방부가 지역의 눈치를 본 사이 광주·전남의 상생 차원이 아닌 갈등의 관계로 옮겨가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의 주요 공약으로 반영해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군공항 이전사업은 광주·전남의 상생과 성장이라는 주요 가치고, 양 지역의 미래기반과 경제기틀을 바꾸어주는 주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반드시 민주당 총선 공약에 반영되어 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예비후보는 “달콤한 광주·전남 상생발전이 아닌 구체적인 방안들을 주고받으며 최선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며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상생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예비후보는 “기본적으로 ‘광주·전남은 하나’라는 초광역권 개념을 전제로 풀어가야 한다”며 “인구가 많지 않고 소외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남의 어느 지역에서 군 공항을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석형 “광산구를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육성”

광산갑 예비후보



예술 랜드마크 ‘광산구’를 집중 육성해 365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석형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광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블루오션과 창조경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문화 기획자”라는 슬로건으로 광주 광산구만의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정치, 일자리를 만드는 정치, 실속을 챙기는 정치로 지역사회의 더 큰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무안·영암·신안 지방의원 24명

도의회서 서삼석 예비후보 지지 선언



에 앞장서며 ‘농어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데 헌신했다”고 평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무안·영암·신안 지역 도의원 4명과 군의원 20명이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나선 서삼석(사진)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30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의원은 2018년 6·13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돼 1년 7개월의 짧은 의정활동에도 서민·사회적 약자·농수축산인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데 앞장섰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서 의원이 농촌 지역 3선 자치



포토라인에 선 임종석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검찰, 목적 가진 기획 수사”

10여명 출사표...합평군수 보궐선거 과열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 출석

임종석(5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전 10시 5분께 검찰 청사에 도착한 임 전 실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 덮어놓은 사건을 이첩할 때부터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다. 못하면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책

임도 지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이 좀 더 단정했으면 좋겠다. 왜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는지 아프게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임 전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71) 현 울산시장 출마와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었다. /연합뉴스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합평군수 보궐선거가 10여명의 예비후보들이 난립해 과열조짐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공천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서 3~4명이 출사표를 던진 무소속 후보와의 치열한 접전 예상되고 있다. 30일 지역 정가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이상익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출판기념회를 갖고 일찌감치 표발 같이 나섰다. 여기에 정문호 민주당 중앙당 인권위부위원장도 본격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40대 기수로 합평군수 보궐선거에 출마 선언한 김성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과 김현철 전 셋별유치원 원장, 유재기 중앙당 특별위원회 자격

심사를 통과해 곧 예비등록을 한 후 선거 운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용수 도의원과 김성호 전도의원은 중앙당 재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무소속 후보로는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정철희 합평군의회 의장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3선 군의원 출신인 정의장은 “현역 군의원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없이 자격심사를 보류하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군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정두수 전 KBS프로듀서도 “합평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며 무소속 후보로 지역을 누비고 있다. 또 신경선 전 합평경찰서 정보보안과장도 출마선언을 하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합평=황운학 기자 hwang@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전남 목포시 상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6.5㎡(413.37평) 건물 : 684.43㎡(207.04평) 지상5층 주차장별도 매매가 50억 백년대로본 보증금2억7천 월수입2천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토지**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2691㎡(813.99평) 매매가 122억 분할가능 8차선대로변접 병원, 사옥 건축 적합. 현 건축물 있음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5233㎡(1582.98평) 매매가 58억5천7백 대로변 위치최상, 조정가능
- 주요소** 광주 광산구 장덕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69㎡(595.62평) 매매가 50억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56%) 16억4천만원
- 근린시설**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8 토지 : 1403.6㎡(424.6평) 건물 : 8545.06㎡(2584.9평) 지하2층 지상8층 감정가 89억6천7백만원, 최저가 (70%) 62억7천7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북구 중흥동 704-9 토지 : 662㎡(200.3평) 건물 : 4555.58㎡(1378.1평) 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 41억9천8백만원, 최저가 (70%) 29억3천8백만원
- 근린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토지 : 607㎡(183.618평) 건물 : 762.51㎡(888.809평) 지하1층 지상3층 곡성온천 감정가 6억9천3백만원, 최저가(70%) 4억8천5백만원
- 농 지** 광주 서구 쌍촌동 488번지 266㎡(80.5평) 감정가 2억3천6백75만원 원룸, 주택부지 적합
- 농 지** 광주 서구 동림동 180-1번지 1098㎡(332.1평) 감정가 2억8천9백9십만원 최저가 (70%) 2억3백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운암동 780-56 토지 168㎡(50.82평) 건물 205.87㎡(62.276평) 감정가 1억6천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